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uvenile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n their Self-efficacy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 전공

김 기 일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족학 박사과정

문 기 라

영남대학교 가족 주거학 전공

최 외 선*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Master Kim, Ki-Il

Dept. of family Studies, Yeungnam University

Completion of a Doctoral course Moon, Kee-Ra

Dep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Choi, Wae-S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educational basis for establishment of harmonious parent-child relationship by confirming how important parent-child relationship is in dealing with juveniles and by grasping how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causally affect on self-efficacy of juveniles.

Subjects for the study ar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ity of Andong, total 845 students

* 교신저자 : 최외선(E-mail: choisc@yumail.ac.kr)

(male 422, female 423). Measurement tools are thos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self-efficacy. For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re employed to show how effective and causally relative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are on juveniles' self-efficacy.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ore parental care the juveniles receive the higher their internal control becomes. Whereas the less paternal care and the more excessive parental care the juveniles have, the higher their external control appears. And the more parental care, the higher internal control, and the less external control the juveniles receive or present, the higher self-efficacy they show.

In verification of causal models on parent-child relations,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self-efficacy, parental care not only gives direct influence on juveniles' self-efficacy but comes into effect on their internal-external control. But maternal care reaches direct influence only on juveniles' self-efficacy, not in the area of self control. Excessive parental protection shows indirect effect only, while excessive maternal protection discloses direct influence as well as indirect effect through external control.

주요어(Key Words) :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돌봄(care), 과보호(excessive protection),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control), 자기효능감(self-efficacy)

I. 서 론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동시에 매우 복잡한 심리 사회적 관계로, 자녀는 부모와의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감, 자율성 및 근면성, 주도성, 정서적인 관계, 동일시, 사회화의 경험, 및 자아개념 등을 형성하게 된다(박영림, 최해림, 2002).

부모는 양육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감정적인 지지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의미있는 가치와 기준을 조성해주고 건설적인 대처방식을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고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양육과정은 자녀가 신뢰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또한 주어진 과제를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위해 특정행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

인의 예측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선택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1986).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때 그 행동을 보다 자주 선택하고 지속하며,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Bandura, 1977). 그러므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활동하고 선택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다.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윤운성, 1999).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노력을 줄이거나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배정숙, 1998).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동기적 요소를 부여하므로 지적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과 관련된 학업성취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정순애, 1998; 차인수, 2001) 진로결정(김수리, 2005; 박미진, 1999; 조아미, 2000), 학교적응(김병찬, 1995; 안인영, 2005; 임동란, 1998)등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많은 문제행동(김의철, 박영신, 1999; Jessor, Donovan, & Costa, 1991)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정서적인 변화에 적응해야하며, 자기역할에 대한 갈등, 현실과 이상의 심한 불균형, 학업성적과 부모의 교육적 기대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 등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갈등들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최외선, 문기라, 2004).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적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효능감은 가정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경험, 형성, 발전(Bandura, 1986)하므로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관심과 신뢰감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친밀한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부모자녀관계가 친밀하고 온정적이면 부모는 심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필요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Maccoby, 1980).

Chorost(1962)는 부모의 온정이 정서장에 청소년의 적대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안정성이 있고 정상적 발달을 가져오며, 거부하는 자녀에게 공격성, 비행, 정서의 빈약 등을 일으키고, 완전주의적 태도는 자녀에게 욕구불만, 자신감의 결여, 강박관념 등을 갖게 하며, 과보호는 성숙과 독립성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성격형성과 행동발달에 기초가 되는 부모자녀관계를 체계화한 Symonds

(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극단적인 지배-복종이나 수용-거부가 아닌 중간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부모자녀관계라고 하였다. 한편 Schaefer(1959)와 Rohner와 Nielsen(1978)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과 적대, 자율과 통제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했다. 또한 Baumrind(1967)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으로 나누었으며, Maccoby와 Martin(1983)은 이 세 가지에 무관심의 양육태도를 추가하였다. 또한 송지영(1992)은 돌봄(돌봄-무관심)과 과보호(통제-과보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유형화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모가 충분한 애정과 민주적, 자율적, 수용적, 적절한 감독과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보인 가정의 자녀들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높은 도덕적 추리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Jersild, 1974; Pettit, Bates, & Dodge, 1977). 하지만 부모가 권위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무관심, 거부적, 적대적,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행동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강영자, 1997; 최정주, 2002; Loeber & Dishion, 1983; Whitebeck, Hoyt, & Ackley, 1997).

그러므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정서적 문제, 위축, 과잉, 공격, 퇴행, 강박과 같은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다(김성일, 1997; 김영숙, 1988). 이와 같이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와 또래관계, 문제행동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외현화된 문제에만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적응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기효능감과의 연구가 최근에 들어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친애적, 자율적, 수용적, 온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김민정, 2003; 김민정, 2004; 박기종, 2000; 이동영, 199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인지 및 정서, 행동 등 전인적인 발달을 하게 된다.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이건 그 행동에는 보상이나 처벌, 즉 강화가 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강화가 자신이 행한 행동의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는 내재적 통제자는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사건을 자신의 행동결과의 책임으로 지각하고, 외재적 통제자는 환경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외적인 힘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결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각한다. 그러므로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Rotter, 1966).

Stephens와 Delys(1973)는 내외통제성은 3세 아동이면 이미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

에 내외통제성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성 점수와 아동의 지능과 부모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Stephens는 지능이 높고 특히 인지에 민감한 아동일수록 내외통제성을 가지며, 어머니의 양육방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즉, 사랑이 깊고, 세심히 돌보며 그가 말하는 소위 인자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기대적, 보호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내적통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공정숙, 1996; 김경애, 1995; 김학진, 2000; 윤정애, 1995; Davis & Phares, 1969). 그리고 내외통제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성이 외적통제성보다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03; 정유선, 2003).

그 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Stephens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보고를 했다. 즉, 그들은 부모의 애정, 지지 그리고 인정은 아동으로 하여금 내적통제성을 갖게 해 주며, 반대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비판, 억압 그리고 지배는 아동의 외적통제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외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 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자율성과 상호 의존성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Dollinger & Taub, 1977; Duttweiler, 1984),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Friedberg, 1982; Gordon, 1977). 또한 내적 통제 아동은 외적 통제아동보다 지각능력이 더 우수하며 능률적(Lefcourt, 1976)이고 자아개념(박석기, 1984; 이종해, 1982; 최완규, 1994; Chandler, 1976)과 도덕적 판단력의 수준(나동석, 1992; 조현주, 198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내외통제성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즉,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며, 이 과제의 결과와 원인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하는 것은 내외통제성이므로 내외통제성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기효능감에 관한연구는 관련변인과의 관계(김민정, 2000; 박진아, 2000; 이동영, 1997; 유효현, 2001; 정순애, 1998)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족변인에 관한 연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두는 연구(신향숙, 장윤옥, 2001; 윤운성, 1999)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그가 처한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때,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비행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이은주, 2000), 김애경(2003)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혹은 개인적 요인인 내외통제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을 뿐 자기효능감을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을 통합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근원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견하고 계발하도록 하며, 수시로 직면하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며,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현명한 선택과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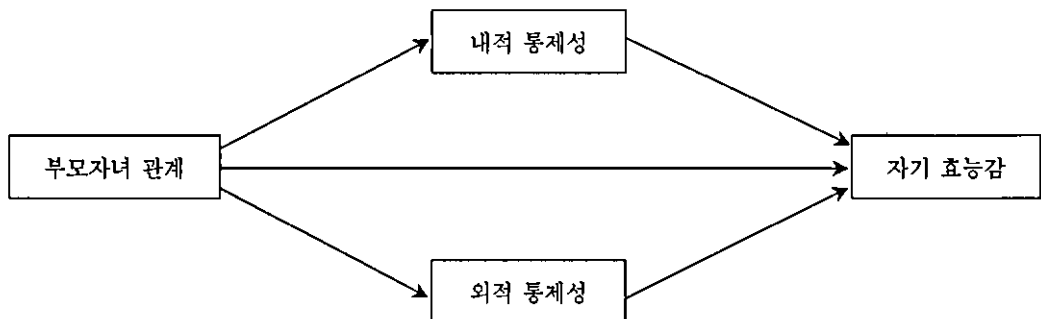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안동시 근교에 있는 남녀 중학교 7개교의 중학생 1, 2학년 9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학급단위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 기제가 미비한 55부를 제외한 84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422명(49.9%), 여학생 423명(50.1%)이었고, 1학년 424명(50.2%), 2학년 421명(49.8%)이었다.

3. 연구도구

1)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Parker, Tupling, Brown(1979)이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개정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바탕으로 송지영(1992)이 개발한 한국판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세 이전의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보고하는 회고형 2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돌봄과 과보호의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돌봄'차원은 돌봄 대 무관심/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며, '과보호'차원은 통제/과보호 대 독립성, 자율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안 그렇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부모자녀관계 척도에서 돌봄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적 태도를 나타내며, 과보호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과보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과보호 차원은 Cronbach's $\alpha=.76$, 돌봄 차원은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 내외통제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외통제성 척도는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 통제성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정은주, 손진훈(1981)의 학생용 내외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내적 통제성 14문항, 외적 통제성 26문항으로 모두 40개의 강제선택형(forced choice type) 문항으로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점은 내적 통제이면 1점, 외적 통제이면 0점을 주어서 총점을 내외통제점수로 산출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지적이고 학업에 관련된 행동강화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의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 통제성은 Cronbach's $\alpha=.52$, 외적 통제성은 Cronbach's $\alpha=.69$ 이었다.

3)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와 Maddux 등(1982)에 의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로 이동영(199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부모자녀관계, 내외 통제성,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과보호적(M=2.10, M=2.05)보다 돌봄(M=2.92, M=3.12)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내적 통제성(M=.68)이 외적 통제성(M=.44)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자기효능감(M=2.46)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수준 (N=845)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항 목	평 균	표준 편차
부 돌봄	2.92	.49	내적 통제	.68	.17
모 돌봄	3.12	.45	외적 통제	.44	.15
부 과보호	2.10	.40	자기효능감	2.46	.51
모 과보호	2.05	.40			.

2.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표 2〉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간의 상관관계 (N=845)

	부돌봄	모돌봄	부과보호	모과보호	내적통제	외적통제
부돌봄	1.00					
모돌봄	.46***	1.00				
부과보호	-.57***	-.41***	1.00			
모과보호	-.29***	-.59***	.54***	1.00		
내적통제	.26***	.31***	-.20***	-.18***	1.00	
외적통제	-.23***	-.26***	.29***	.30***	-.06	1.00

***p<.001

회귀분석에서 이용된 독립, 종속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자녀 관계와 내외 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N=845)

독립변수	종속변수	내적통제성 (β)	외적통제성 (β)	자기효능감 (β)
부돌봄		.138***	-.107***	.157***
모돌봄		.245***		.166***
부과보호			.108*	
모과보호			.208***	
내적통제성				.312***
외적통제성				-.180***
R^2		.108	.113	.293

* $p < .05$ *** $p < .001$

β 표준화 회귀계수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3〉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부돌봄을 비롯한 6개 독립변인에 의해 변량의 29.3%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beta = .138$), 모돌봄($\beta = .245$)으로 나타났고, 외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beta = -.107$), 부과보호($\beta = .108$), 모과보호($\beta = .208$)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많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돌봄이 적을수록, 부모의 과보호가 많을수록 외적 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beta = .157$), 모돌봄($\beta = .166$), 내적 통제성($\beta = .312$), 외적 통제성($\beta = -.180$)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3.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과모형 검증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그림 2).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만을 인과모형에서 도식화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먼저 독립변인이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부돌봄($\beta = .138$)이 내적 통제성에, 부돌봄($\beta = -.107$)이 외적 통제성에, 모돌봄($\beta = .245$)이 내적 통제성에, 부과보호($\beta = .108$)는 외적 통제성에, 모과보호($\beta = .208$)는 외적통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부돌봄과 모돌봄

이 많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고, 부돌봄이 많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낮았으나 부과보호와 모과보호가 많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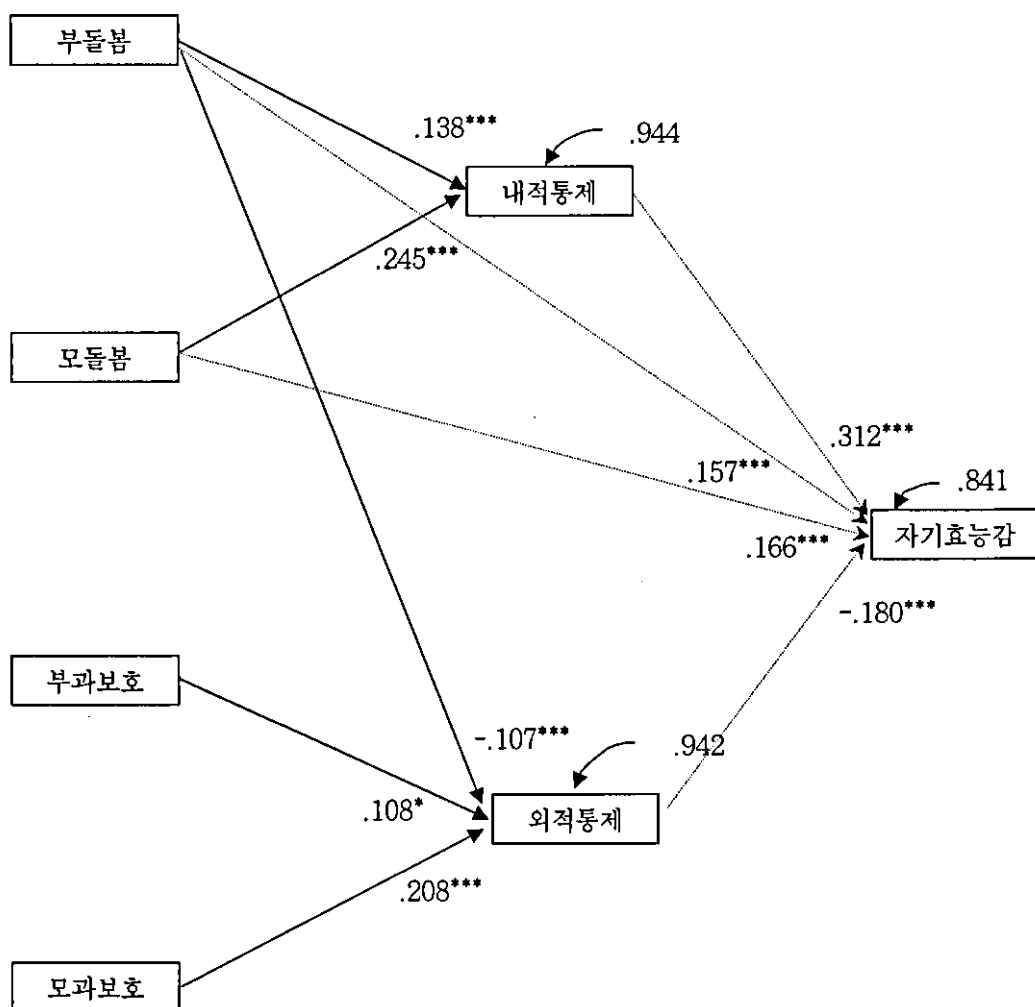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내적 통제성($\beta=.312$)이며, 외적통제성($\beta=-.180$), 모과보호($\beta=-.180$), 모듈봄($\beta=.166$), 부돌봄($\beta=.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낮을수록, 모과보호가 적을수록, 모듈봄과 부돌봄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인과효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수들이 가지는 총 인과적 효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부모자녀관계 중 부돌봄, 모듈봄, 모과보호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돌봄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부돌봄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157$)와 내적 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beta=.043$, $\beta=.019$)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돌봄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내외통제성을 중재효과로 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듈봄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beta=.166$)와 내적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beta=.076$)를 합하여 총효과는 .243이었다.

부과보호는 간접효과($\beta=-.072$)만을 나타낸 반면에 모과보호는 직접효과($\beta=-.180$)와 외적통제성을 통한 간접효과($\beta=-.028$)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과보호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내적 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312$, $-.180$)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내적 통제성과 외적 통제성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내적 통제성($\beta=.312$)이 외적 통제성($\beta=-.180$)보다, 모듈봄($\beta=.243$)이 부돌봄($\beta=.219$)보다, 모과보호($\beta=-.208$)가 부과보호($\beta=.072$)보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의 인과모형

〈표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인과효과

변인 \ 구분	총체적 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부돌봄	.349	.219	.157	.043	.019	.130
모돌봄	.383	.243	.166	.076		.140
부과보호	-.306	-.072			-.072	-.234
모과보호	-.266	-.208			-.028	-.058
내적통제성	.409	.312	.312			.097
외적통제성	-.274	-.180	-.180			-.094

총체적 효과는 단순상관계수(Pearson의 직렬 상관 계수)임

IV. 논의 및 결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의 근원을 밝혀 예방과 개선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가정에서 먼저 발달하므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845명(남 422명, 여 423명; 1학년 424명, 2학년 421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 척도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부와 자녀의 관계를 과보호적이라기 보다 돌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은 외적 통제성보다 내적 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유선(200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기가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인 장미선과 이정연(2003), 최인규(200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 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의 내적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과 모돌봄으로 나타났고, 외적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 부과보호, 모과보호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내적 통제성은 높고, 부돌봄이 적을수록, 부모의 과보호가 많을수록 외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내적통제성의 중요한 변인인 반면에 외적통제성은 부모의 통제와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부돌봄, 모돌봄,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돌봄이 많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외적 통제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친애적, 자율적, 수용적, 온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민정, 2003; 김민정, 2004; 박기중, 2000; 이동영, 1997)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elker(1974)가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향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므로, 통제가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느끼는 개인은 무력감을 갖게 되어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자기효능감은 내재적 통제 경향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연구(정종진, 1989, 재인용)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적통제성이 외적통제성보다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현진, 2003; 정유선, 2003)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봄 차원으로 지각하고,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내적통제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할수록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환경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외적인 힘에 있다고 보는 외적통제자일 수록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낮은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행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향상과 내적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돌봄, 모돌봄, 모과보호,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기는 하지만 부돌봄은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모돌봄은 내적통제성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부과보호와 모과보호는 외적통제성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돌봄과 내적통제성이 부모의 과보호와 외적 통제성보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내적통제성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내재적 동기원으로 기능하여 성취도 및 정서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Schunk(1993, 1994)의 연구와 개인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계속됨으로 해서 마침내는 실패를 내적 요인으로 보게 되므로, 이는 부정적 자기효능감 형성의 밑바탕이 된다고 한 연구(김기정, 1984; 김호권, 1979)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모의 돌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돌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에서 볼 때, 부모가 양육적일 때 청소년은 성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부요인으로 지각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성취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어 자신있게 행동하며,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안정된 성격과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소유하게 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층을 대상으로 횡적방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의 가장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경북안동 소재의 중학교 1, 2학년으로 국한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내외통제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남녀 성별의 차이와 발달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전 생애 발달단계의 각 시기별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측정에 있어 자녀의 주관적인 보고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자녀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각각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와 내외통제성을 함께 살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살펴 본 연구가 드문 현시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준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의 예방 및 부모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자(1997).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그들의 음주, 흡연, 약물남용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6(2), 27-36.
- 공정숙(1996). 부모의 사회적 배경·지각된 통제양식과 자녀의 내외통제성 및 자아 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1995).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0). 초등학생의 통제소재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대처 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4).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찬(1995). 고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일(1997).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5(3), 39-65.
-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학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내외통제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3).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권(1979). 자아개념의 변화에 관한 유사 횡단적 연구. **행동과학 연구**, 112, 3-11.
- 나동석(1992).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종(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1999).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석기(1984). 내외통제적 성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림, 최해림(200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부부갈등지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741-75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진아 (2000).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숙(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 신향숙, 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안인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효연(2001).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운성(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58.
- 윤정애(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내외통제성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이종해(1982). 대학생의 내외 통제적 정도에 따른 자아개념.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란(1998).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 이정연(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33-447.
- 정순애(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선(2003).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내외통제소재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손진훈 (1981). 학생용 내외 통제척도제작 연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 노트**, 10(2).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정종진(1989). 직업군인 직업안정성 보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3), 1-20.
- 조현주(1981). 내외통제성과 도덕적 판단간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 문기라(2004). 청소년의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1(2), 149-165.
- 최인규(2002). 중학생의 학업 결과 기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완규(1994). 아동의 통제소재와 고유자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주(2002).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 비행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Chandler, T. A.(1976). A note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ality-externality, self acceptance and self-ideal discrepancies. *Journal of Psychology*, 94, 145-146.
- Chorost, S. B.(1962).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ir correlates in adolescent hostility.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66, 49-90.
- Davis, W. L., & Phares, E. J.(1969). Parental antecedent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dent. *Psychological Reports*, 24, 427-436.
- Dollinger, S., & Taub, S.(1977). The interact on of locus of control expectations and providing purpose on children's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1, 118-127.
- Duttweiler, P.(1984). The internal control index : A newly developed measure of locus of contro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4, 209-221.
- Felker, D.(1974). *Bulding positive self concepts*. Mineapolis: Burgess.
- Friedberg, R. D.(1982). Locus of control and self-concept in a status offender pop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50, 289-290.
- Gamsa, A.(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60, 291-294.
- Gordon, D. A.(1977). Children's beliefs in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self-esteem as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383-386.
- Jersild, A. T.(1974). *Child psychology*(7th). Englewood Cliffs : Prentic-Hall.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1991).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fcourt, H. M.(1976). *Locus of control*. New York : Wiley.
- Loeber, R., & Dishion, T.(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1), 68-99.
- Nowicki, S., & Strickland, B. 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Maccoby, E. 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Harcourt Brace Javanovich.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Ed.:P. H. Mussen, 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 Parker, G., Tupling, H.,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ttit, G., Bates, J. E., & Dodge, K. A. (197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study. *Child Development*, 68, 908-923.
- Ramey, C. T., McGinnes, G. D., Cross, L., Collier, A. M., & Barrie-Blackely, S.(1982). *The Abecedarian approach to social competence : Cognitive and linguistic intervention for disadvantaged preschoolers*. In K. Borman(Ed), *The social life of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 Hillsdale, J. J.: Erlbaum.
- Rohner, R. P., & Nielsen, C. C.(1978).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 re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of research and therapy*. New Haven, CT : HRAF.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609).
- Schaefer, E. S.(1959). *Converging Conceptua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chunk, D. H.(1993). *Enhancing Strategy use : Influence of strategy value and goal orient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9. p.217).
- Schunk, D. H.(1994). *Goal and Self- Evaluation Influences During Children's Mathematical Skill Acquisition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 No. ED. 339. p.217).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ephens, M. W., & Delys, P.(1973). Lotus of control measure fo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9(1), 55-65.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ublications.
- Whitebeck, L. B., Hoyt, D. R., & Ackley, K. A.(1997). Families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 comparison of parent/ caretaker and adolescent perspective of parenting,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 conduct. *Child Abuse Neglect*, 21(6), 517-528.